



그래도
곰은
아니지!!
ㄱ
ㄱ

하긴
그 때는
면도조차
안 했
지만



뭔가
냄새가..
ほんか

뭔가요
저 수영
자국...!?

헉!
무서워!!
츰

그런 별명이
붙어
버렸기
때문일까

왕도
에서
나는

사교회
에서
냄새는 기피되는
안 나 꼬라지...!!
거든?



라고
생각하던
시기가
나에게도
있었
습니다



별 일 없이
순탄하게
끝내고 얼른
돌아가고
싶구나..



그렇게
평생
노총각으로
살 팔자를
각오했거늘

너와는
당장
파혼
이다!!





황태자의
머리가
이상해진 것,
둘 중
하나였다

내가
잘못
들었거나



대체
무슨 생각
인 거지
루미너스
왕국의
황태자...

물론
내 귀는
정상
이었다



저 옆의
계집은...

메일
이다



아리오스
루미너스



그리고



이미
알 사람은
다 아는
애첩인가
보군

야..
호사가들의
말이
사실이었나

그 왜,
하티 남작
가의..

시트엔
배리모어

그의
정식
약혼자



허나



덕분에
처음 봤을 땐
움직이는
누에고치인 줄
알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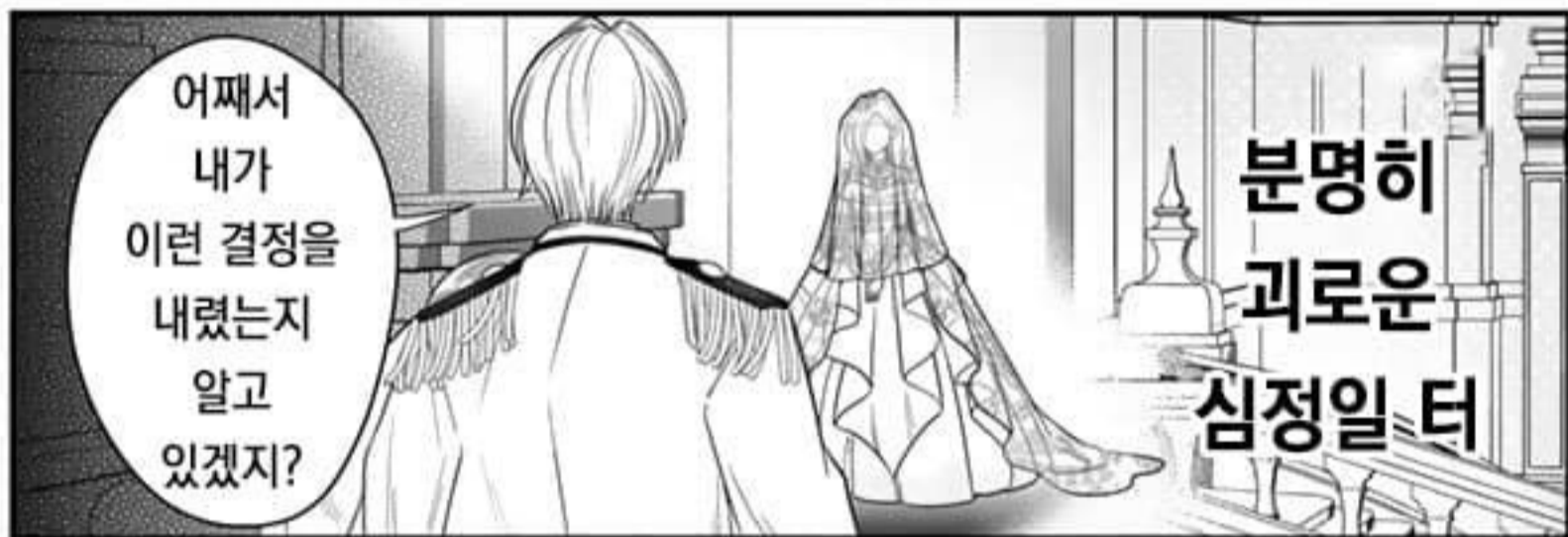
여전히
얼굴을
보이지
않는구나





약혼자에게
이런
처사는
너무
가혹하지
않나?

약혼에
앞서
2년씩이나
같이 생활
했다고
들었는데



어째서
내가
이런 결정을
내렸는지
알고
있겠지?

분명히
괴로운
심정일 터



극악무도한
행위를
일삼았기
때문이다!!

바로 네가
나의
사랑스러운
메일에게





저 둘은
세상물정에
대해서
아는 것이
없는 거다!!



춤출 때
각자 정해진
위치가
정해져
있었을 텐데,
으음...

춤추고
있을 때도
막
부딪히고..

평민의
무지로 일어난
일이라면
이해라도 한다!!
근데 왕족과
귀족이 사교회의
서열을
무시하다니!!



